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With You

2016 Summer

통권 21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Rio2016

#TeamRefugees

모바일 소식지 연결

올림픽과 난민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Contents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① 리우 올림픽과 난민 03
② 라틴 아메리카와 난민 07
③ 긴급구호 활동 08

With You가 만난 사람
유엔난민기구 신임 한국 대표 10

한국대표부 소식
① 기관 소식 + 후원 소식 12
② 로이터 사진전 14

난민보호 캠페인
난민을 응원합니다 + 후원 약정서 15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리우 올림픽 가로세로 낱말 퀴즈 16

Cover Story

이번 리우 올림픽에는 사상 최초로 난민 대표팀이 다른 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시리아 난민 수영선수 2명, 콩고 난민 유도선수 2명, 에티오피아 난민 마라톤 선수 1명, 남수단 출신 중거리주자 5명으로 구성된 난민 대표팀 10명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 UNHCR

발행인 나비드 후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6년 7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모금(PSFR)팀
디자인 슬로워크

#TeamRefugees

리우 올림픽과 난민, 희망의 난민 대표팀

다가오는 8월 5일, 31번째 올림픽이 브라질의 항구도시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리우 올림픽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올림픽의 구성원들입니다.

유스라 마디니

출신국/비호국: 시리아/독일
출전 종목: 200m 자유형

욜란데 마비카

출신국/비호국: 콩고민주공화국/브라질
출전 종목: 유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유도는 제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강한 심장을 가지게 했습니다."

— 난민 대표팀 유도 선수 욜란데

"이곳에 오기 전까지
트레이닝 신발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 난민 대표팀 육상 선수 파울로

파울로 아모툰 로코로

출신국/비호국: 남수단/케냐
출전 종목: 1,500m 달리기

로즈 나타이크 로코옌

출신국/비호국: 남수단/케냐

출전 종목: 800m 달리기

"열심히 노력해서
제 자신을 증명해보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다면
평화를 증진하고
사람들을 화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난민 대표팀 육상 선수 로즈

"모든 난민을 대표해
고통과 폭풍의 시기가 지나면
평온한 날들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 난민 대표팀 수영 선수 유스라

유스라 마디니

출신국/비호국: 시리아/독일

출전 종목: 200m 자유형

"고향은 너무 위험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난민 대표팀에 대해서 듣고 나서부터
매일 하루 두 번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동기가 됩니다."

— 난민 대표팀 마라톤 선수 요나스

요나스 킨데

출신국/비호국: 에티오피아/룩셈부르크

출전 종목: 마라톤

유스라의 이야기

고향 시리아의 상황이 악화되자 9개월 전, 유스라와 그녀의 언니 사라는 20여 명의 다른 난민과 함께 작은 난민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바람은 망망대해에서 난민 보트의 엔진이 꺼지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영 선수였던 유스라와 그녀의 언니는 차가운 바닷속에 뛰어들었고 보트를 밀며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몸이 꽁꽁 얼어붙고 피로로 지쳤지만, 아무도 죽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아래 두 자매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고, 두 명의 다른 난민이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탄 난민 보트는 기적적으로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 해안가에 다다랐습니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한 두 자매는 새로운 삶을 재건할 꿈을 안고 원래 목적지였던 독일로 향했고, 그곳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습니다. 현재, 유스라는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수영장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제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경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거예요."

유스라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난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고국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유스라는 오늘도 올림픽 출전의 그 날을 위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미래를 꿈꿉니다.

라미 아니스

출신국/비호국: 시리아/벨기에

출전 종목: 100m 접영

"피난길에 제가 가진 가방에는
재킷, 티셔츠, 바지가 두 벌씩 들어있었고,
두 달 정도 터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 난민 대표팀 수영 선수 라미

하난 다가흐

출신국/비호국: 시리아/브라질

나이: 12세

"난민들이 진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 성화 봉송자 시리아 난민 소녀 하난

"다리 부상으로 선수의 꿈은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올림픽 성화 봉송을 통해
꿈을 대신 이루었습니다."

— 성화 봉송자 시리아 난민 이브라힘

#TeamRefugees

리우 올림픽과 난민, 희망을 향한 도약

"난민들의 올림픽 출전은
역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모든 난민의 용기와 끈기에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대표팀,
그리고 모든 난민과 함께합니다."

—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최초의 난민 대표팀

이번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난민 대표팀(Refugee Olympic Athletes)이 다른 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지구촌 난민 위기를 환기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s Committee, IOC)가 기획하였으며,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난민 대표팀으로 참여할 10명의 선수들을 발표했습니다.

난민 대표팀은 시리아 난민 수영선수 2명, 콩고 난민 유도선수 2명, 에티오피아 난민 마라톤 선수 1명, 남수단 출신 중거리주자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난민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깃발을 들고 주최국인 브라질 팀보다 앞서, 올림픽기 바로 뒤에서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난민 대표팀의 올림픽 출전은
전 세계 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며,
난민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장

올림픽 성화, 희망의 불꽃

이번 올림픽을 특별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여한 난민들입니다. 4월 21일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이번 올림픽 성화는 95일간의 여정을 거쳐 8월 5일 개막식 날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마라카낭 경기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화 봉송에는 약 1만 2,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두 명의 난민이 성화 봉송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은 시리아 내전으로 다리 한쪽을 잃은 수영선수 이브라힘이며 다른 한 명은 12세 시리아 난민 소녀 하난입니다.

성화 봉송에 참여한 난민들을 비롯해, 선수로 출전하는 10명의 난민들에게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보내주세요!

#TeamRefugees

리우 올림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도 난민이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주로 국내실향민들로 이루어진 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난민

인구	6억 명 이상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수	약 700만 명
주요 난민 발생국	콜롬비아(약 650만 명)
주요 난민 발생 원인	— 정부와 무장 세력간의 분쟁 — 초국적 범죄·마약밀매 조직의 폭력 — 자연재해 등

2015년 긴급구호 활동

72시간 내 최대 6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전문 UN기구인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덕분에 전 세계 수백만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긴급구호에서 시리아 분쟁으로 피난을 떠난 400만 명의 난민들을 돕는 일까지, 여러분 덕분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① 시리아와 주변국

—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 지역
— 보호대상자: 등록 난민 430만 명 이상, 2015년에만 160만 명 신규 난민 등록
— 전체 난민의 75%는 여성과 어린이

② 네팔

— 80년간 네팔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지진
— 20만 가구 이상 파괴, 280만 명이 생활 거처 잃어버림
— 24시간 이내 긴급구호 물품(방수포 41,500개 이상, 태양광 램프 8,000개 이상) 현장 배포

③ 이라크

— 보호대상자: 320만 명 이상
— 2014년 1월 이후 난민 100만 명 이상에게 임시 거처와 필요 물품 전달

④ 남수단

— 보호대상자: 270만 명(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우간다 난민 77만 명 이상 포함)
— 전체 난민의 68%는 18세 미만
— 수단에 도착한 남수단 난민 12만 명 이상에게 긴급 거처와 필요 물품 전달

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보호대상자: 주변 4개국 거주 난민 45만 명 이상, 국내실향민 44만 7,000명 이상
— 2015년 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28만 명 이상의 실향민들에게 도움을 줌

⑥ 예멘

— 2015년 3월 이후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예멘인 10명 중 한 명이 국내실향민
— 3월 이후 15만 명 이상의 국내실향민이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받음

⑦ 유럽 난민 위기

—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를 통해 유럽에 도착
— 긴급 대응을 위해 200명이 넘는 유엔난민기구 핵심 직원과 단기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파견됨
— 유럽 난민 위기 사태 시작 이후 32만 개 이상의 담요 전달

* 더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긴급구호 활동은 우측 큐알코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대지진 긴급구호

2016년에도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지난 4월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부상당했습니다.
대지진이 강타한 에콰도르의 북부 무이스네(Muisne) 지역은 난민을 비롯한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다수가 정착해 살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난민을 비롯해 20만 명의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가장 큰 난민 수용국입니다.

지원 현황

후원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에콰도르 현지에 필요 물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대지진 강타 후
4월 20일 유엔난민기구 구호품 수송기 현지 도착

4월 22일 구호물품 배포 시작
(텐트 900개, 침낭 15,000개, 모기장 18,000개, 방수포 7,000개, 태양광 램프 6,100개, 물통 7,000개, 주방도구 등)

수혜자 이야기

여러분의 도움으로 에콰도르 난민 메라는 적시에 새로운 임시 거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라 영상 보기

"너무 무서웠어요. 시멘트 덩어리가 두 아이를 덮칠 뻔했어요.
제가 살던 이층짜리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유엔난민기구의 텐트가 필요하던 찰나에, 다행히도 텐트가 도착했어요.
이곳까지 와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파올라 메라 에콰도르 대지진 생존자

메라의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전달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15페이지 약정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7)로 보내주시면, 긴급구호 상황에 처한 더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신임 한국 대표

"분쟁, 폭력, 박해로 피난길에 오른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6월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 영화제에 참석한 나비드 한국 대표의 모습 © UNHCR

지난 5월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나비드 후세인 신임 대표를 With You가 만나보았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및 파트너들을 위해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드 후세인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및 파트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퀘이드-아이-아잠 대학교, 영국의 리즈 대학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1989년 유엔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유엔난민기구에서는 1993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울의 한국대표부는 제가 대표를 맡는 네 번째 사무소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멘 대표부(2011-201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표부(2007-2011), 조지아 대표부(2004-2007)에서 대표로 일했고, 그 이전에는 알바니아 대표부(1999), 제네바 본부(1997-199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표부 (1993-1996)에서 선임 프로그램 조정/담당관으로 일했는데 주로 식량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1991-1992), 유엔개발계획(UNDP, 1989-1991) 등 다른 국제 기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Q2. 20년이 넘게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셨는데,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난민이 있다면요?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서의 활동 중에는 2001년 유엔(UN)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당시, 유엔사무총장 수행 직원으로 선출되어 그 자리에 함께했던 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밖에 난민과 함께한 여러 에피소드도 가지고 있는데, 보스니아 사라예보의 한 소녀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1993년 제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한 지인을 통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몸이 아픈 네 다섯 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녀의 가족은 돈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이나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들만 사라예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저는 저는 제 지인과 다른 직원을 통해 그 어린 소녀에게 음식과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사무소를 떠난 지 11년 후 유엔난민기구 대표로서 보스니아를 재방문하게 되었고, 예전에 그 어린 소녀를 소개시켜줬던 지인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점심 식사 자리에 스무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제 지인은 이 여성이 제가 예전에 도왔던 어린 소녀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15년만에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보스니아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살아남아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실향민들이 유엔군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 모습
© UNHCR / E. Dagnino / 1995. 7.

스레브레니차 출신 무슬림 실향민들이 투즐라 공군 기지에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
© UNHCR / E. Dagnino / 1995. 7.

Q3. 가장 힘들었던, 또 반대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그렇지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던 순간 모두, 제가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지역에서 벌어진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면했을 당시였습니다. 1995년 7월 그 지역을 점령한 세르비아군은 십 대 소년을 포함한 남성들을 여성들과 분리시켰고 이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남성들과 분리된 3만 명에 이르는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은 유엔의 보호를 받던 보스니아 정부 관할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세르비아 군은 보스니아의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스레브레니차도 세르비아 군에게 포위된 지역 중 하나였고, 우리가 항공 투하나 수송 차량을 통해 구호 물자를 공급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뒤로는 산으로, 앞으로는 도로로 막혀 있는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세르비아 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레브레니차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학살이 벌어진 지역이며, 약 8천 명의 무슬림 남성과 소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유엔은 그곳에서 남성과 분리된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을 받아들였고, 1995년 당시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투즐라(Tuzla)라는 지역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업무를 도왔습니다. 유엔 사무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말 취약한 상태였고 뼈가 다 드러나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남동생, 남편, 아버지를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습니다. 저는 지원팀의 팀장으로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살리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며 많은 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밤낮으로 일한 끝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때 정말 보람 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한국에서, 저는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의 주범이자 당시 세르비아 리더인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를 포함해 국제인도범죄에 책임 있는 개인을 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 근무했던 한국인 판사 한 분을 우연히 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카라지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이지요. 어쨌거나 저는 대학살이 일어난 지 21년이 지나, 카라지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을 같은 하늘 아래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Q4. 한국 후원자 및 파트너들에게 난민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난민과 강제 이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폭격과 분쟁을 피해 수많은 사람이 강제로 피난길에 올랐던 6.25전쟁의 어두운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이러한 전쟁과 강제 이주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6,000만 명이 넘는 강제 이주민이 있고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수치를 마주하면서, 저는 이 난민들이 얼굴 없는 통계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실제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난민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을 하던 아버지, 동생들을 돌보던 언니·오빠,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던 학생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가족과 집, 교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이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분쟁, 폭력, 박해로 피난길에 오른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Q5. 마지막으로 한국 후원자 및 파트너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후원자 및 파트너 여러분, 전 세계 난민을 향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여러 가지 활동은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난민들에게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수요에 대응할 자원은 불충분한 상태이며, 국제 사회의 지원 체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0개 이하의 국가가 전 세계 난민의 80%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현 상황은 용납될 수 없으며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난민들이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로서 부임한 지는 몇 달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한국 후원자 및 파트너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엔난민기구의 전 세계 난민보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스레브레니차 사건:** 블라디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군이 1995년 7월 11일 유엔 안전지대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레브레니차의 이슬람 신도 주민 약 8,000명을 집단살해한 만행을 가리킨다. 구유고슬로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 학살이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대표부 소식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쉘터 캠페인 런칭

지난 5월 18일, 유엔난민기구 본부는 전 세계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쉘터 캠페인'을 공식 런칭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Nobody Left Outside'라는 슬로건 아래, 2018년까지 난민 200만 명에게 텐트, 임시거처 등과 같은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글로벌 쉘터 캠페인을 위해 필요한 기금은 미화 7억 2,400만 달러이며, 6월 현재 미화 5억 달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대표부에서도 올 하반기 쉘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존과 삶의 재건에 있어서 단 한 명의 난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Nobody Left Outside' 캠페인 영어 슬로건에 대한 한국어 슬로건을 공모 받습니다. 더 많은 난민이 안전한 곳에서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아서 7월 31일까지 문자(1666-5147, 제목에 '2016 여름호/이름/우편물 받으실 주소' 표시)로 보내주시면, 참여자 중 일부 선정하여 소정의 감사 선물을 전달드립니다.

2016 세계 난민의 날, 제2회 난민 영화제 개최

지난 6월 18일, 한국대표부와 난민지원네트워크는 제2회 난민영화제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날 영화제에는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가 참석해 전 세계 난민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으며, 배우 겸 가수인 소이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포터로서 개막공연에 참여해 영화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가 2015년 방문한 남수단에서 만난 세 명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희망〉을 비롯해 〈대답해줘〉, 〈말해줘, 무싸〉, 〈디판〉 등 총 4편의 난민 소재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으며,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전 세계 난민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지난 5월 26일, 한국대표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의 보고대회를 대한변호사협회 및 난민지원네트워크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는 법조단체, 정부, 시민단체, 학계, 대한민국 주재 공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 그 절차 및 심사 기준의 문제점, 송환대기실 내 비호신청자의 처우 및 인권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2016년 국제 난민 컨퍼런스 개최

지난 6월 10일-11일,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난민법 판사협회(IARLJ)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2016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카텔리네 드클레르크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을 비롯해 국내외 법관,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법무부 난민과, NGO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난민 관련 논제를 다루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개최

지난 6월 23일 한국대표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금번 학술포럼은 상명대학교,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난민법 개정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니클로 르완다 난민촌 헌 옷 전달

지난 5월, 글로벌 SPA의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 Fast Retailing Co. Ltd)가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르완다 난민촌을 찾았습니다. 유니클로 및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르완다 기헴베(Gihembe)와 마하마(Mahama) 난민촌을 방문해, 리사이클 캠페인으로 모인 약 54만 벌의 소중한 옷을 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움의 손길로 모인 한 벌 한 벌의 소중한 옷들은 르완다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전달되어 1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글로벌 파트너인 유니클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헌 옷 1,500만 벌을 40개국 이상의 난민들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한 난민보호 캠페인

6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타리 난민촌의 일상을 담은 가상현실(VR) 체험, 산모들에게 제공되는 출산키트 체험, 물통 나르기 체험, 난민텐트 및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3,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을 통해 난민촌의 실상을 체험하고 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올여름, 키자니아에서 유엔난민기구를 만나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잠실에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키자니아(Kidzania)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활동 체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난민 산모들에게 제공되는 출산키트*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난민 여성과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간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출산키트:**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기본 의료 처치없이 아기를 낳는 산모를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제공하는 출산키트에는 비닐천과 면포, 일회용 장갑, 소독 처리된 메스, 청결을 위한 비누, 출산을 돕는 설명서 등이 들어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과 함께하는 달콤한 나눔

크리스피 크림 도넛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 '달콤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정된 날짜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더즌' 한 박스를 구매하면 무료로 한 박스가 더 제공되며, 동시에 박스 당 100원이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촌 식수사업으로 기부됩니다.

— **캠페인 기간:** 2016. 4. - 2017. 3. (매월 2회)
— **캠페인 진행 매장:** 전국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

* 7월 행사는 7월 13일, 24일 진행되며, 자세한 행사 일정과 참여 매장은 유엔난민기구 블로그(blog.naver.com/unhcr_kore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민에게 전하는 2배의 나눔! 신한카드 아름人 1:1 매칭 이슈 기부

신한카드와 함께 난민을 위한 1:1 매칭 이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사회공헌 사이트인 '아름人 이슈 기부' 모금함을 통해 모아진 기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신한카드에서도 기부하여 2배의 후원금이 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신한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혹은 신용/체크/기프트 카드 결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 **신한카드:** arumin.shinhancard.com, 1544-7000
— **KB국민카드:** www.kbcard.com, 1588-1688

삶의 터전을 잃고
가장 위급한 순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을 구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보호의 손길, 고맙습니다!

광고100 대표이신 개그맨 윤세윤 씨가 개인 소장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난민들을 위해 기부해 주셨습니다.

학교·학생 후원자 — 기계중앙교회 중고등부학생회 / 다사랑교회 청소년부 / 글로벌선진학교 GVCS / SIS Canada /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 길스터디 학원 학생들 / 영파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 육민관고등학교, 문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반크 / 천안쌍용고등학교 3학년 1, 2, 4, 6, 9, 10, 12반 / 한양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개인·기업·단체 후원자 — (주)에이에스엠케이 / (주)휘랑 / 김규아 / 김근아 / 김만년 / 김영기 / 김요섭 / 김종길 / 김주영 / 김창현 / 김태원 / 김혜란 / 박익한 /서광교회 / 소정임 /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관계자 여러분 / 여미숙 / 제일성모안과 / 조은영 / 최경숙 / 홍성지 / 홍정숙 님을 비롯한 모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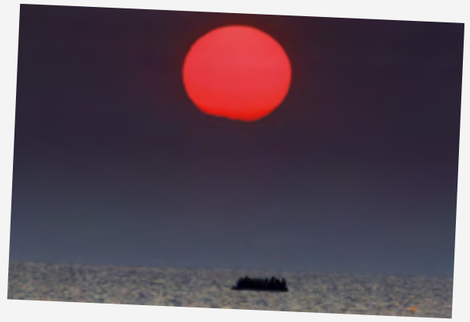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로이터 사진전 후원

사진을 통해 만나는 세상의 드라마, 난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한겨레 신문사와 로이터(REUTERS)가 공동 주최하는 사진전을 후원합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지난 160여 년간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해온 로이터통신은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3개월간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사진전 〈로이터 사진전: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를 개최하며,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분쟁지역의 난민들 사진을 비롯해, 로이터사가 보유한 1,300만 장 이상의 아카이브 자료 중에서 엄선한 440여 점의 사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 클래식, 이모션, 유니크, 지구 여행, 리얼리티, 스폿라이트의 6개관 중 리얼리티 관에서 난민 관련 사진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시리아 난민이 폭풍우를 뚫고 그리스 이도메니 마을에서 마케도니아 국경으로 걸어가면서 딸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과 같이 유럽으로 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본국에서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로 이들은 비호를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야니스 베흐라키스(Yannis Behrakis) / 2015. 9. 10.



시리아 난민을 가득 태우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에게해를 건너던 작은 배가 그리스 코스섬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있는 모습입니다. 2016년 5월까지 2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지중해, 에게해 등의 해상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피난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 야니스 베흐라키스(Yannis Behrakis) / 2015. 8. 11.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코스섬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이 자신들이 타고 온 작은 선박 위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해상을 통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많은 수의 난민과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야니스 베흐라키스(Yannis Behrakis) / 2015. 8. 9.

코소보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알바니아계 여성이 다른 난민들과 함께 블라체 국경을 넘어 산악지대인 마케도니아에 입국하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밤새 코소보 남부 산악지대를 넘어온 2천 명 이상의 코소보 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의 협조로 입국을 허가받아 마케도니아로 들어왔습니다.

© 야니스 베흐라키스(Yannis Behrakis) / 2015. 8. 9.

사진 출처: 로이터 사진전 사무국 제공

* 자세한 전시 정보는 오른쪽 큐알코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reutersdrama.com
* 로이터 사진전을 감상하고 사진전 포토월에서 인증샷을 찍어 문자(1666-5147)로 '2016 여름호 사진전/이름/우편물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신 분 중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난민을 응원합니다"
#WithRefugees 캠페인

우리처럼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 형제자매로서 평범한 일상과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우측 큐알코드를 통해 태권도를 배우는
9세 시리아 소녀 솔라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후원 약정서

후원 약정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면, 기존 후원자를 비롯하여 누구든 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후원자 정보 이미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_____ **예금주 생년월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기금선택 ☐ **시리아 긴급구호** ☐ **전 세계 긴급구호** — 유럽, 이라크,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후원금액
☐ **100만 원**이면, 난민 다섯 가족에게 텐트 등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30만 원**이면, 난민 여성 4명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회만)
☐ **10만 원**이면, 난민 어린이 한 명에게 꿈을 키워줄 초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매월 1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기타**(☐ 정기 ☐ 일시) _____ 원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수요 및 모금 현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름호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 기존 후원자가 일시후원하는 경우, 본인의 정기후원금에 위의 일시후원금이 1회만 더해져 출금되며, 약정서가 본인의 정기출금일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익월에 출금됩니다.
— 출금일에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된 경우, 당월 25일(10일 출금) 또는 익월 5일(20, 25일 출금) 1회에 한해 재출금됩니다.
—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_____(서명 또는 인)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리우 올림픽과 난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의 정답을 사진 찍어 문자(1666-5147)로 '2016 여름호 퀴즈/이름/우편물 받으실 주소(예 2016 여름호 퀴즈/홍길동/서울시 중구 무교로 6)'를 기재하여 7월 31일까지 보내주신 분 중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 여름호 소식지 4-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로낱말

① 브라질의 수도

③ 2016년 하계 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여한 난민들의 국적

④ 2016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의 이름

⑥ 200m 자유형에 출전하는 시리아 출신 난민 수영 선수의 이름

⑦ 브라질에서 성화를 봉송한 12세 난민 소녀의 이름

세로낱말

② 아메리카에서 과거에 라틴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 중남미로도 불리며,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가 포함되는 지역

⑤ 시리아 내전으로 다리 한쪽을 잃고 올림픽 출전 대신 성화 봉송에 참여한 난민의 이름

⑥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국문 명칭

지난호 정답

퀴즈에 참여해주신 많은 후원자분께 감사드립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전화 02-773-7272 (기업후원 02-773-7075) **이메일** 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www.unhcr.or.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 **페이스북** www.facebook.com/unhcr.korea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주소 (우)04523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